

학회장으로서 경과보고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박창제입니다.

그동안 한국노인복지학회 학회장으로서 수행하였던 내용에 대해 학회원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되어 적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회 실명과 익명, 심지어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사실은 짐작되는 바도 있음) 자료부터 작성되어 회원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악의에 찬 허위사실 유포와 온갖 억측에 대한 해명차원이기도 합니다.

저에 대한 허위사실은 제가 감당하려 했지만, 학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및 회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학회장으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 학회장 출마와 선출

- 노인복지학회장은 초대 회장 임춘식교수가 약 9년, 현외성교수 2년, 이근홍교수 약 3년, 이인수교수 약 3년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선출과정이 있었다기 보다 임춘식교수를 중심으로 집행부의 논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처음으로 2014년에는 회장 공고가 있었고 두 분의 회원이 입후보하였습니다. 총회에서 30여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고 제가 다득표를 받아서 2015년-2016년에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2. 학회장 취임과 학회 집행부 구성

- 학회인수는 임춘식교수(전회장)가 재가요양서비스업을 하는 개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학회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책 등을 넘겨받았습니다.
- 집행부와 이사회 구성은 전임회장단 및 노인복지학계에서 학술성을 인정받았다고 판단되는 연구자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은 제 관점과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바탕을 둔 것이긴 했지만 학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와 학술적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와 지연이나 학연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이전에 없었던 산학위원회와 국제교류위원회가 신설되었고, 분과위원구성도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3. 2015년 운영

1) 2015년 한국연구재단 노인복지연구 등재지 유지: 편집위원장 및 사무국 서류 작성

2) 2015년 추계학술대회 개최(주제: 고령사회, 신노년 문화를 논하다: 의존담론을 넘어 주체적 시민으로): 발표 및 토론자 42명/ 청중 300명 이상 참여/ 경북대 190만원 및 장소 지원, 경상북도 200만원 지원

- 학회 영문 제목 및 학술지 이름 변경(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가 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로 변경)

3) 학회통장 명의자 변경(2015년 6월): 전임 회장(임춘식교수)이 통장명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5년 6월에 대구 북구세무서에 단체명의로 한국노인복지학회로 하여 저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서 변경할 수 있었음.

4) 학술상 규정: 노인복지학회가 학술상을 연례적으로 수여해왔지만, 규정이 없어 현 집행부 논의결과 “노인복지학술상”에 대하여 “우수논문상”, “우수대학원생논문상”을 신설하고 엄격한 규정마련.

5) 2015년 추계학술대회 개최(주제: 한국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구미시 학술대회 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600만원 지원/ 발표 및 토론자 40명/ 청중 300명 이상 참여

6) 추계학술대회 실무자 워크숍 첫 실시(주제: 노인복지 사례관리) 실천전문가 60명 참여

7) 노인복지학회 정책과제 수탁: 석재은 학술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방안”이라는 정책 프로젝트를 약 3,400만원에 한국노인복지학회로 위탁받아서 실시
-> 340만원 간접비 학회

8)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선정(편집위원장 및 사무국 서류 작성): 800만원 지원

4. 2016년 운영

- 1) 2016년 연구재단 우수등재지 지원: 91.5점(85점 이상이면 등재지임)의 고득점을 받았지만 미 선정 -> 인문사회분야에서 우수등재지 선정된 학술지 없었음.
- 2) 영문학술지 질적 개선 노력: 논문심사 없이 편집위원장(이인수교수)의 검토만을 통해서 게재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개선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이인수교수가 학회장에 강하게 저항하고 전체 회원들에게 비난 메일을 보내는 등, 불가 입장을 변경시킬 수 없어서 반영하지 못함.
- 3) 춘계학술대회 개최(주제: 초고령사회 카운트다운 10년, 한국사회는 준비되었나?); 40여명 발표 및 토론자/ 참여인원 300여명/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복지대학원 원장(Stephanie Robert) 기조강연

4) 임시 이사회 개최(회칙변경): 주요변경 사항

기존사항	변경사항	사유
노인복지연구 법인정관	노인복지연구 회칙	- 노인복지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을 회칙으로 수정
회장선출: 총회 과반수 참석 선출	이사회 선출 후 총회승인	- 총 회원 약 1,600명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것 불가능/ 한국노년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타 학회 사례검토 후 결정

- 5) 일본개호학회 학술교류(일본 나가노): 회장, 국제분과위원장(전용호교수), 이사(조성희교수)가 학술회의 발표와 국제교류 확대 노력
- 6) 2016년 추계학술대회 개최(주제: 노인인권: 노인의 목소리, 우리는 얼마나 듣고 있나?)
- 학회 및 워크숍 150명 참여
- 7) 임시이사회 및 총회 개최: 석재은교수 이사회 선출 및 총회 승인

5. 비상대책위원회 문제 제기

- 1) 전회장 수습 차례 메일 발송: 현 회장 및 집행부에 대한 모욕적인 글 -> 이에 대해 학회집

행부 의논을 통해 전체 안내 메일 보냈음

- 2) 회장 200만원 미국 출장비: 회장이 미국을 간적 없음 -> 위스콘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기조강연 초청 비용(항공료 및 숙박 지원)
- 3) 장기요양세미나 600만원 지출: 정책 수탁과제 비용으로 사용/ 학회는 간접비 340만원 받음
- 4) 편집위원장 20-30만원 수령: 이는 편집위원장(이민홍교수)이 아니라 편집간사 수당 지급(편집간사 통장으로 사무국에서 매달 지급)
- 5) 학회간사 80만원 수령: 학회간사가 아니라 사무국장 급여 지급(예전부터 사무국장 급여로 100만원 주던 것을 편집과 분리하면서 사무국장 80만원 편집간사 20만원으로 변경)
- 6) 김옥희교수 발전 기금 200만원 거부: 학술상 선정 및 학회장 선출에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결정.
- 7) 전 회장과 만남 거부: 전회장들의 회장에 대한 만남요청이 전혀 없었음.

6. 에필로그

돌이켜 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익단체입니까?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인가요? 백번 생각해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맙습니다. 정말 학술위원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석재은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임기동안 개최된 모든 학술대회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학술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느 학회의 학술회의보다 훌륭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우수한 연구자, 학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었습니다. 편집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민홍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학회 편집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전환시켰고, 심사의 공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2015년과 2016년 모두 등재지 평가신청을 하여 두 번다 등재지 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doi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회일이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국제교류위원장으로 활동한 전용호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정의로워서 국제교류는 물론이고 학회

관련 모든 일에 솔선 수범하였습니다. 강종수산학위원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전공분야가 노인복지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저를 돕기 위해 큰 짐을 지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워크숍을 원만히 이끌어주셨고 덕분에 3회의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회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 강대선교수, 정하선교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총무 일을 맡아 주셔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분의 덕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엄기욱부회장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저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문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엄기욱부회장이 아니었으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 말 못할 사정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는 위에서 기술한바가 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한다면 학술단체의 운영은 단순합니다. 학술회의 개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학술논문 발간, 나아가 산학협력, 정책지원 등입니다. 다행히 우리 학회는 동원하지 않는데도 학술대회시마다 매년 300명이 넘는 회원들의 참여, 1년에 4번 발간함에도 불구하고 논문 모집시 추가모집이 없었습니다. 또한 연구재단 수백개의 사회과학 등재지 중 인용지수 2-4위(매년 약간 다름)에 이르는 학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음해와 허위사실로 현 집행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식 시키고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석재은교수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학문적 역량이 있으신 분입니다. 석재은교수가 회장으로 취임하면 노인복지학회는 다시 한번 도약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지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학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 11. 2.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박창제 배상.